

광주은행 '고객 중심 경영' 행보 속도 낸다

봉선금융센터 개소...영업점 내 첫 'WM 라운지' 신설 고액 자산가 등 체계적 맞춤형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부동산·은퇴설계 등 자문...미술·인문학 등 세미나도

광주은행의 '고객 중심 경영'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은행은 개점 이래 최초로 영업점 내에 WM (Wealth-Management·자산관리) 라운지를 신설하고 진밀감 높은 현장 경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광주지역 내 자산가 거주비율이 높은 봉선동에 WM라운지를 열고 고객 맞춤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금융 종합 자문서비스는 물론이고 미술, 인문학 등 세미나도 개최될 예정이다. 시중 대형 은행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향토은행에서 시도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3일 광주은행 봉선금융센터(광주시 남구 봉선로 146)를 이전,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은행 봉선금융센터는 앞서 봉선아파트지점이라는 명칭으로 이마트 봉선점 내에 입점했었으나,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봉선동 주요 길목으로 이전했다. 일선 지점에서 금융센터로 한 단계 도약한 봉선금융센터는 광주은행 영업점 최초로 WM(자산관리) 라운지를 신설해 고액자산가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은행이 봉선금융센터에 WM라운지 신설을 결정한 건 전문성과 자산가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센터 내부에 별도로 마련된 WM라운지는 라운지 내부 프라이빗 룸(private room)에서 PB (Private Banker·자산관리전문가) 직원과의 1대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고객별 금융 니즈를 파악하고, 최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고객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시장흐름에 따른 투자전략과 세계개편 관련 금융자산 관리법을 안내하는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 관련 분야를 밀접하게 안내한다. 금융상품·부동산·재테크·은퇴설계·세무·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의 품격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비즈니스 관련 주제는 물론 미술과 인문학, 건강, 문화 등의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고객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든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취임 이후 고객의 니즈에



지난 3일 문을 연 광주은행 봉선금융센터(광주시 남구 봉선로 146) 이전식에 참여한 고병일 광주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있다. 광주은행 봉선금융센터는 영업점 최초로 WM(자산관리) 라운지를 신설해 고액자산가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은행 제공>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선보이는 WM라운지는 고객중심경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광주은행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상무 Prime PB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센터 내 비즈니스 룸을 사업 미팅장소로 제공해 고객에게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하고, 고품격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많은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타금융권에 서의 벤치마킹이 꾸준히 이어지는 등 지역 자산가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 이전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병내 남구정장, 이경 광주2본부 광관리대리인협회장과 지

역 기업 CEO 등이 참석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고객의 든든한 자산관리 파트너가 되고자 새롭게 문을 연 WM라운지를 통한 고객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탄탄한 기본을 갖춘 역동적인 강소은행으로 지역민의 든든한 성공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부세 현행 유지...대출 규제 풀어 '역전세' 리스크 관리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1년 완화 가업 승계 세제 혜택 추가 결혼자금 무상증여 5천만원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 역전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금 반환목적으로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한다.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결혼자금에 대한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놨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방안을 담았다. 상반기 경기 상황을 반영해 연간 정책방향을 수정·보완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37기 중점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제시 ▲미래대비 기반 확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수출·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에 방

점을 짚었다. 첨단전략산업 리소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 활성화 3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내수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가업승계 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완화가 추진된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10%) 과세 구간을 현재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업공제 혜택을 원하는 상속인은 사후관리기간 5년간 표준산업 분류상 중(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대(대)분류로 넓혀겠다는 것이다. '민생경제 안정' 과제의 일환으로 주거안정에도 무게를 실었다. 우선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2021년 말~ 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

이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당초 80%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중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중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식가격 비율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중장기 과제인 '미래대비 기반 확충'의 최우선 과제로는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개편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자녀에 대한 무상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향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광주·전남 물가 상승률 21개월만에 2%대

국제유가 하락 등 영향

물가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가 21개월만에 2%대로 낮아졌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1.4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2%대 물가상승률은 2021년 9월(2.5%) 이후 21개월 만이다. 광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2월 4.9%에서 올해 1월 5.3%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5.1%, 3월 4.7%, 4월 3.9%, 5월 3.2% 등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도 111.6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상승했다. 전남의 2% 물가상승률 역시 2021년 9월(2.5%) 이

후 21개월 만이다. 전남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1월 5.3%에서 지난해 12월 5.7%로 오른 이후 올해 접어들면서 물가 오름세가 둔화, 2%까지 내려왔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역대 최대폭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떨어진 게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광주는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32.5%, 23.1% 떨어지는 등 크게 하락. 돼지고기와 갈치 등 농축수산물도 0.9% 하락했다. 전남에서도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32.2%와 23.5% 하락했고, 돼지고기와 국산 쇠고기도 각각 7.8%와 4.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체감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광주는 1.9%, 전남은 1.1% 상승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취임

양동구(사진)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4일 취임했다. 양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 청장은 "작년 하반기 영업실적 악화와 자산 시장 침체,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상반기 세수 실적이 전반기 대비 부진한 상황"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민생경제를 적극 지원하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은 가운데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펼칠 것"이라며 "적극적인 납세면의와 서비스 제공으로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업무를 집행하되,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염두에 뒀다"며 "세무조사는 경기상황과 개별업체의 여건을 감안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신임 청장은 1966년 순천 출생으로 순천고와 세무대(5기)를 졸업한 뒤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해남세무서장과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문진원 '콘텐츠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웹툰·게임 등 등 5개 과정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 콘텐츠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아카데미는 애니메이션 분야 교육과 웹툰 기본 과정, 게임 기본과정, XR+메타버스 등 5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애니메이션 기본과정과 웹툰 기본과정은 모집이 종료됐으나 애니메이션 심화과정은 오는 19일까지, 게임 기본과정과 XR+메타버스 기본과정은 오는 8월 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을 거쳐 선발된 우수 교육생 4명에게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문화를 체험하고 전문을 확장할 수 있는 LA투어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콘텐츠 관련 분야 취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93.31(-9.61)
↑ 코스닥	890.00(+0.71)
↑ 금리 (국고채 3년)	3.619(+0.006)
↓ 환율 (USD)	1301.40(-6.60)



LG 휴대용 TV '스탠바이미' 할인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9층 LG전자 매장에서 기방처럼 들고 다니며 영상·음악을 시청할 수 있는 'LG 스탠바이미'를 선보이고 있다. 해당 매장에서는 스탠바이미가 119만원에 판매, 기존 스탠드형 제품인 스탠바이미는 이달 말까지 회원가로 109만원에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